북일고, 자사고평가 통과.. 현청 광철 민사 계성 이어 다섯 번째

안산동산고 '취소' 교육부 절차.. 송원고 사실상 폐지

[0호] 2014년 07월 30일 (수) 19:31:42 김경 기자 ✉ inca@veritasnews.kr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 북일고가 올해 실시된 자사고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자사고 운영기한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한다. 올해 평가대상 25개교(지방 11개교, 서울 14개교) 중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민사고 계성고에 이은 다섯 번째 통과 결과다. 북일고는 올해 실시된 운영성과 등에 대한 자사고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자사고 운영을 연장하는 사실에 대한 공문을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30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날 전했다. 북일고가 속한 충남지역은 진보교육감 당선지역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공동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북일고의 평가결과는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지난 18일 2015학년 전형요강 승인에 따라 무사 통과가 예상된 터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들은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다섯 가지다. △회계부정 △부정입학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이중시간표 등) △지정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겠다고 해당 학교가 신청 △평가 후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취소요건이 발생하는 교육청은 교육부장관에 동의절차를 거친다. 교육청 요청이 있은 지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은 동의/부동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현재 안산동산고가 '미흡' 판정으로 현장 반발 가운데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전국단위 자사고 북일고가 올해 실시된 자사고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자사고 운영기한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한다. 올해 평가대상 25개교 중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민사고 계성고에 이은 다섯 번째 '통과 결과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0년 3월부터 자사고(자율형사립고)로 운영, 올해 평가대상 25개교 중 북일고와 함께 현재 자사고 기한을 연장하는 자사고는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민사고 계성고다.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김천고(경북) 계성고(대구) 등 보수교육감 지역의 4개교를 제외한 21개교는 진보교육감 지역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공동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앞날이 불투명했지만, 북일고(충남)와 광양제철고(전남) 민사고(강원)는 진보교육감 지역임에도 보수교육감 지역인 현대청운고(울산) 계성고(대구)와 함께 무난하게 '우수' 판정을 받으며 자사고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안산동산고는 '미흡' 판정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재지정 취소를 놓고 협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송원고(광주)는 계속연장 승인이 났으나 조건부 승인 결정인 상태다. 입학전형에서 내신 상위 30% 지원자격을 철폐하는 조건이다. 결국 내신 성적 3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전형을 운영하는 송원고 입장에서는 선발권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사실상 자사고 폐지의 결과로 해석되는 형편이다.

자사고 계속 운영으로 의결된 북일고 현대청운고 광철고 민사고 계성고와 '미흡' 판정으로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안산동산고, 선발권이 사라져 사실상 폐지로 결론난 송원고 외에 올해 평가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자사고는 지방 자사고 4개교(포항제철고 상산고 김천고 해운대고), 서울 자사고 14개교(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로 총 18개교다. 평가결과를 앞둔 자사고 중 포철고 상산고 김천고 하나고만 전국단위 자사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광역단위 자사고다.

지방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포철고 상산고 김천고)는 '연합평가단'이 모두 시/도교육청 연합평가단의 평가 점수 상으로는 재지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시/도 지정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인 상태다. 송원고처럼 통과했음에도 의외의 조건이 붙어 사실상 폐지로 내몰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광역자사고 해운대고는 위원회 평가는 통과했지만 교육감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석준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자사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온 터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운대고는 부산/경남지역 유일의 자사고라는 점과 만족도가 높은 점에서 위원회 평가를 통과했지만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경남권에 1개뿐인 자사고이고 학생/학부모 등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은 점 등이 지정 연장 의견 배경으로 꼽힌다"며 "재지정되면 이후에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 시도가 2016학년에 적용하는 걸로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재평가를 통해 일정 자사고를 지정취소시키는 것은 물론 자사고들의 면접을 폐지, 선발권을 박탈하겠다는 움직임으로 자사고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지역 광역자사고들은 설립초기부터 지역이나 성별 균형이 맞지 않아 미달사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키며 자사고 전체에 대한 비난의 빌미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당수 일반고 전환이 예상되기도 했다.

서울지역이 조 교육감의 강경의지에 의해 일정 자사고 폐지가 예견되는 가운데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도에서 안산동산고가 취소 위기에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진보교육감 지역인 광주에서 송원고가 사실상 자사고 폐지로 몰리자 위기의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다. 2500여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의 시위 이후엔 전국 자사고 교장들의 공동대응 결의, 서울 25개 자사고 동문회 회장들이 모인 자사고 총동문회의 성명 발표까지 연일 지역과 구성원을 망라한 현장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엔 2011년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휘문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양정고 장훈고 등 서울지역 11개 광역단위 자사고와 외대부고(용인외고) 인천하늘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2개교, 대성고 서대전여고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 성신고 숭덕고 군산중앙고 익산남성고 등 9개 광역단위 자사고 등 총 22개교가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2014 평가대상 자율형 사립고

서울 14개교			지방 11개교		
소재지	학교명	모집	소재지	학교명	모집
은평	하나고	전국	강원	민사고	전국
동대문	경희고	광역	전남	광양제철고	
종로	동성고		경북	포항제철고	
강동	배재고		경북	김천고	
서초	세화고		전북	상산고	
마포	숭문고		천안	북일고	
강북	신일고		울산	현대청운고	
구로	우신고		경기	안산동산고	광역
서대문	이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중구	이화여고		대구	계성고	
강남	중동고		광주	송원고	
종로	중앙고				
양천	한가람고				
성동	한대부고				

한편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으며 자사고 운영기한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한 북일고(충남 천안)는 한화그룹이 전폭지원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다. 지난해까지 서울대 352명, 고려대 630명, 연세대 361명, KAIST/포스텍/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에 426명을 진학시키는 등 충남명문으로 꼽힌다. 그간 파행운영이 이어져온 일부 자사고들과는 달리 북일고는 탄탄한 재정과 문이과를 망라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화그룹의 학교법인 북일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로 매년 50억원 가량의 재단전입금이 투자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특성화프로그램 최우수학교로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선 용인외고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재단의 지원에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치밀함으로 내실을 다져온 북일고는 올해 서류와 면접을 강화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전국 인재를 유치해 전국 명문의 방점을 찍을 태세다.

'스쿨 인 스쿨' 개념으로 2010학년 신설한 북일고 국제과는 해외대학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을 별도 선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1기 25명의 102곳이라는 화려한 진학실적으로 북일고를 단번에 선호학교 1순위로 부상시킨 바 있다. 2기를 배출한 2014년에도 22명에 불과한 국제과 졸업생들이 62개 대학 119건의 합격의 성과를 냈다. 교사진과 커리큘럼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방과후학습 체제로 유학반을 운영하는 타 학교들과는 달리 15명의 외국인교사들과 별도 카운슬러가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한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6명에 불과하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9명. 교육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개별지도가 가능한 셈이다. 게다가 외국인교사들은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대부분 미국 상위 20위 내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들이다. 특히 카운슬러가 10학년부터 고교 3년간 진행하는 진학지도는 11학년부터 진행하는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시스템이다.